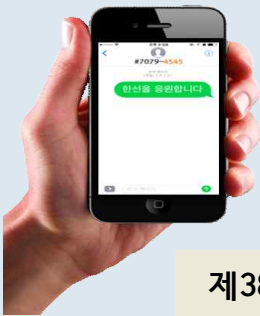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발제자]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8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개방 거부로 인한 역사적 실패경험을 갖고 있다. 구한말, 기득권 세력인 사대부들의 개항 반대로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 나라가 망했다. 개혁과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이겨내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교육과 보건의료 시장 개방, 노동시장 개혁, 연금개혁 등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해당 분야의 발전이 정체되고 낙후되었다. 이해관계자의 시장 개방 반대를 극복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그 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 교육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개방된 도시와 국가로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인재를 따라서 돈이 모이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개방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이는 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경우, 학습지체/부진으로 낙오하는 학생은 AI교사를 활용하여 1대1맞춤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영유아에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정한 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교육시장 개방

- ◆ 한국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근현대 100년 국가발전의 역사는 시장 개방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경제,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되었고 이 결과 개방분야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낙후한 분야도 있다.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시장을 개방하지 못한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분야이다.
- ◆ 2003년 WTO에 교육 개방양허안 제출 시 고등교육과 성인 분야 교육개방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개방 논의가 있었으나 교육부와 대학이 외국의 대학이 들어오면 국내대학이 모두 망한다고 반대하여 개방하지 못했다. 다만, 제주도, 송도 등 특구를 지정하여 개방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어가 공용어인 싱가포르의 전체 학교가 국제학교인 셈이다. 태국의 경우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국제학교가 있다. 그만큼 영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교육 개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외국의 대학이 몰려와도 국내 대학이 피해 볼 확률은 높지 않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자유와 자율이 주어진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 ◆ 그동안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감소를 명분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학원 등 사교육을 죄악시하고, 사립학교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통제했다. 그 배경에 교육 사업은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 노조, 시민단체들의 생각이 깔려있다. 교육은 민간재인 동시에 공공재다. 정부는 교육의 민간재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교육의 공공재적인 면만 보면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권도 무상급식, 사교육비 감소, 반값등록금 등과 같이 표를 얻기 위해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지 말아

야 한다.

- ◆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도입하면 할수록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로 교육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국내 교육시장도 2000년대 초반에 개방하였다면 국내 학교가 지금처럼 무력화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과 학교가 나왔을 것이다. 세계는 이미 원격학습과 메타버스와 같은 거대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우리에게 교육 재난 상황이 <원격학습>을 통해 몰려올 수 있다.

## ◆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

### 가.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

- ◆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이 지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한 인민민주주의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종교 교과과는 역사의 발전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교육은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며,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중요한 일이다.

### 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라

- ◆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교육이념이다. 이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통하는 인간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계 보편적 가치와 사상을 함유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 2세들에게 세계의 정신세계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전통사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역주행이다.

### 다.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라

- ◆ 정부는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학교를 늘리는 노력보다 그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과 같이 좋은 학교를 없애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키우기보다 없애려 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역주행 정책이므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 라. 교원 신규 채용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라

- ◆ 위 내용을 담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인사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 국가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 추세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 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50%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 ◆ 대학입시에는 정시와 수시가 있다. 정시는 수능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정량적 평가>이며, 학생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수시는 입학사정관이 지원 학생의 학종 포트폴리오를 보고, 심층 면접을 통해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정성적 평가>이며, 학생의 비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 대학은 학과의 전공 특성에 따라 인지와 비인지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정시/수시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시/수시 비중을 정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불이익을 준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은 물론 시대의 흐름과도 역주행 하는 정책이다. 헌법에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 ◆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 가.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 ◆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분야는 낙후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시대가 더 빨리 오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같이 개방된 온라인 교육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국내외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육서비스시장을 개방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고 외국의 교육기관과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 정부는 국내 대학이 미국, 중국 등의 대학과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 역사에서,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개방된 도시와 국가로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인재를 따라서 돈이 모였던 것을 알아야 한다.

#### 나. 학습지체/부진 학생에 대한 AI교사 활용·지원

- ◆ 공교육의 목표는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매년 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습 지체를 보이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부실한 공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는 AI 교사를 활용하여 1 대 1로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AI의 발달로 인해 학습 지체/부진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 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 제공

- ◆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이다. 문제 해소의 시작은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Fair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출생부터 출발점을 같게 해주기 위한 국가프로그램(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캐나다: Fair Start, 호주: Best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어린이의 출산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개인 데이터 확보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